

석사학위 논문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조서연

2011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선생님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의 1950년대 희곡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 인물이 무대화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규명하여 당대 희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는 실존주의와 미국 대중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은 20~30대의 신진 극작가들이 출현하여 과거와는 다른 감각적인 작품들을 다수 창작해내었던 시기이다. 신진 극작가들의 희곡은 전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가부장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적 애정관계의 중심에 있는 여성 인물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결말에서 그녀들을 단죄하는 플롯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1950년대 희곡 연구는 극작의 배경이 된 가부장적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당대 희곡의 남성중심성과 반(反)여성적 성격을 조명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는 희곡이 플롯과 서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대화를 예비하는 텍스트라는 점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지양하고 해당 희곡 텍스트의 감각적인 측면이 무대화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적 여성 인물이 실제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전복적 효과를 조명하고, 나아가 1950년대 희곡 속의 여성 섹슈얼리티가 극작의 기반을 이루는 가부장적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핀다.

1950년대 희곡에서 다루는 문제적 여성의 첫 번째 유형은 전쟁미망인이다. 전쟁미망인은 가부장의 경제적·성적 통제를 받지 않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가장의 부재와 무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희곡은 전쟁미망인 인물을 적격한 남성 인물과 짝지어줌으로써 젠더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서사를 취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플롯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적 여성 인물이 보여주는 극행동으로 말미암아 본래 극작의 의도에 균열이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모자〉, 〈산상〉, 〈이상〉은 전쟁미망인 주인공의 경제적·성적 결핍과 위기를 제시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의 부인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플롯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인물이 무대에서 취하는 극행동은 그녀들에게 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와 공간의 남성중심성을 폭로하며, 이는 여성 인물의 성적 욕망을 인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이른다. 〈기류지〉와 〈고래〉는 여성 인물의 육체적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전경화하면서 극작품의 상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곡·무대 간의 괴리를 드러낸다. 이는 여성 인물이 드라마 공간에 머물면서 남성 인물들의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될 때와 무대 공간에 직접 출현하여 형상화될 때에 관객에게 포착되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 남성 인물과의 대화 장면이 대사로만 구성되지 않고 극행동을 통한 육체적 대결로 구성됨으로써 섹슈얼리티의 당당함과 건강함이 전경화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1950년대 희곡에서 ‘아프레겔’로 호명되는 전후파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무대 위에 전시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적 주체성을 형성해간다. 적극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여성 인물은 플롯의 층위에서 도덕적 단죄를 받게 되며,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작업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인 폭력의 발현이라고 보는 기존의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무대화의 층위에서 여성 인물의 섹슈얼리티가 혐오의 대상이자 매혹의 대상으로서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상도시〉, 〈비오는 성좌〉, 〈생명은 합창

처럼), 〈심연의 다리〉, 〈성야의 곡〉은 여성 인물들의 현대적 직업이나 급속한 미국화가 성적 방종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독해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 가부장 사회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자 할 때 오히려 여성을 강박적으로 성화(性化)하게 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해당 작품의 여성 인물들이 지닌 성적 이미지는 가족과 공동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섹슈얼리티를 제시하며, 이는 미국 문화의 퇴폐적인 뉴앙스를 지닌 무대 기호와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된다. 즉, 여성 섹슈얼리티의 시각화 과정은 본래 극작의 의도를 거스르며 관객의 선망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대와 관객 간 소통의 층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품 속의 여성 인물이 성적 타자에서 성적 주체로 이행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진다. 남성을 위한 전시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여성성의 시각화 과정이 여성 인물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각하고 긍정하게 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근친상간 및 근친 간의 삼각관계를 모티프로 한 희곡을 살펴본다. 〈비오는 성좌〉, 〈벼랑에 선 집〉, 〈일부변경선근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 구도는 1950년대 남성들의 실존주의와 세대교체라는 의식을 담아내는 도구로 기능한다. 해당 작품의 남성 인물들은 누이 혹은 아버지의 연인과의 애정관계를 성사시킴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에 반기를 들고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살부(殺父)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가 가부장제 자체의 전복을 피하지 못하고 가부장의 세대교체에 머무른다는 점, 이들의 목표가 구체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이라는 플롯은 신세대 남성 인물의 승리로 끝나지만 갈등 해결의 열쇠는 오히려 살부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은 여성 인물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발화와 여성의 극담화가 해당 작품들 속에서 각각 지니고 있는 계몽적 속성과 감각적 속성에 기인한다. 남성 인물은 실존주의의 외피를 쓴 추상적인 대사를 발화하는 반면 여성 인물은 작품 내 인물 구도의 중심인 애정관계의 본질이 섹슈얼리티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극담화를 행한다. 이러한 균열은 해당 작품들이 실존의 획득이라는 하나의 목적 위에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성 및 그 섹슈얼리티를 무대 재현의 전면에 놓는 1950년대 연극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1950년대 관객들의 연극 관람이 이야기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감각적 수용의 측면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상황 또한, 해당 작품들의 플롯이 무대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균열의 원인인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희곡은 전쟁 이후 위기를 맞은 가부장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플롯을 취하지만,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문제적 여성성이 실제로 무대화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작품 속 여성들이 전복적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희곡이 무대 상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는 텍스트라는 점에 착안할 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희곡을 무대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당시 사회에 내재해 있던 감각적인 동력을 포착하고 나아가 희곡과 연극의 장에서 여성성이 재현될 때에 형성되는 다층적인 맥락까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